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7시
 오전 (2부) 7시 30분 10시
 오후 (3부) 10시 2시
 오후 (4부) 2시 7시
 금요일전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10시
 오전 (2부) 10시 2시
 오후 (3부) 2시 7시
 저녁예배 7시 30분
 수요일예배 (지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2월 17일 (제677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칼림

한 번 더 생각하자

‘그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하네지 말 걸. 내가 왜 그랬을까...’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미 었질러진 물, 그래서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듯 금방 후회할 일을 자주 하는 걸일까?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서이고,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아서다. 한 번 생각했더라면,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돌이켜 후회하는 일은 없었으리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마태복음 5장 41절의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을 다섯 번 생각할 거 열 번 생각하라는 뜻으로 풀어보려고 한다. 사업을 앞두고 다섯 번 생각할 거 열 번 생각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결혼을 앞두고도 생각하고 생각하면 발등 찌르는 일 없고,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면 실언하지 않고, 무언가를 살 때도 한 번 더 생각하면 낭비하지 않게 된다.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즉답을 피한다. 왜냐하면 즉답은 다분히 감정적이어서 오류와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 다섯 번 생각할 거 열 번 생각한다. 이쪽에서 생각하고, 저쪽에서 생각하고,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하나의 예로 지금 사는 집도 10번 이상을 보고나서야 샀다. 물론 내가 처음부터 진중했던 것은 아니다. 내 성격이 워낙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하는 터라 생각하기 전에 약속부터하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여서 실수도 많이 했고, 손해도 많이 보았다. 당연히 후회도 많았다.

후회 없는 삶을 원하는가? 감정적인 사람, 충동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다섯 번 생각할 거 열 번 생각하라. 돌리다 두드리보듯,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될 때 후회는 근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 받는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할 때, 많은 이들이 만류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행21:4).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행21:12).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포승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하지만, 사도 바울의 자세는 요지부동이었다.

여정 가운데에는 술한 위기와 목숨을 위협 받는 일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목사님은 이 선교의 여정을 계속하고 계신다.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키르기스스탄(Kyrgyzstan)에서는 옛 KGB에 끌려들어가기도 했고, 종교재판정에 나가 추방령 판결도 받았다. 러시아(Russia)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에서는 숙소에 스며드는 연기로 직사사를 당할 뻔도 했으며, 시베리아(Siberia)에서는 폭탄테러의 위험도 받았었다. 특히 지난 멕시코(Mexico) 파싸팔코스(Coatzacoalcos) 집회에서는 납치협박까지

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따라서 하늘의 천군천사들이 지켜 보호하도록 기도도 하늘보좌를 움직여야 한다. 그 나라의 영력 있는 자들, 재력 있는 자들, 지력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지금까지 목사님이 나가실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이는 그만큼 목사님이 가시는 길의 험난함을 알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다. 우리는 목사님이 가시



지난 2007년 4월 과테말라 말라카탄 집회 장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2-24).

은혜의 복을 전하는데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바울의 순교자적 신앙이 극명하게 표출된 고백이다. 죽는다는 예언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목사님도 자주 공중 앞에서 말씀하시는 바다.

“나는 목숨을 내놓고 이 길을 간다.”

이제 13년에 들어선 목사님의 해외선교

받는 일도 있었다. 험난한 여정이었다. 날이 갈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장시간의 비행기 탑승과 공항대기 및 이동, 완전히 뒤흔치는 시차들이다.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이제 신변의 안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더더욱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하다. 그동안도 성도님들의 합심 기도가 없었다면 수행할 수 없는 여정이었지만, 이제 과테말라(Guatemala)로 향하며 더욱 간절히 마음으로 부탁하고 싶다.

지난 2007년 4월에 있었던 과테말라 말라카탄(Malacatan) 집회의 경험이 더욱 기도를 요청하게 한다. 당시 집회를 주관했던 과테말라 제2의 재벌 후안(Juan)은 중화기로 무장한 경호팀과 방탄차로 목사님을 모셨다. 그만큼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도모하면 하나님

은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며 기사와 표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2주가 넘는 긴 여정이 될 것이다. 과테말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다. 이 또한 가는 곳마다 권력자들이 돕게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이다.

목사님이 가시는 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마다 복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다시 세계로, 복음을 몰라 신용하는 영혼들에게로 나아가시는 목사님의 여정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도록 모두가 합심으로 기도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다.



이초석 목사 과테말라 집회

▶ 장소: 과테말라 & 알도몽고 ▶ 일시: 2월 18일(월) ~ 3월 3일(일)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 (고전3:10~17)



천국에서 어떤 집에 살고 싶은가?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가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불구자나 짙을 때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짙을 때에 빠뜨리우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18:1-10).

왜? 주님은 왜 손과 발이 실족하면 그것을 끊어내고 천국에 가라고 했을까? 그 답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영성으로 본 박용규 목사의 천국 간증에 있습니다. 박용규 목사는 성남 제일교회의 창립자입니다. 그 교회는 5,000명의 교세로

하고는 박 목사의 양쪽 팔을 잡고 번개같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 2분 정도 올라가니까 지구가 축구공같이 작게 보였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그곳에서부터 황금 길이 곧게 깔려있었고(계 21:21) 빛이 번쩍번쩍했습니다(렘 1:4). 천국은 은하수 건너편에 있는데 하룻길 이 걸렸습니다. 천국에 막 들어서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땅의 사람 박용규 목사야,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 그 음성은 너무 부드럽고 따스했습니다. 박 목사가 “예수님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네가 다시 땅에 내려가서 일 많이 하고 구원 받아 올라 오면 그때는 나



를 볼 수 있다.”고 하신 후에 박 목사님에게 “너는 땅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나? 너는 헌금을 얼마나 했나? 너는 땅에서 전도를 얼마나 했나? 너는 십일조를 어떻게 했나? 너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였나?” 하고 다섯 가지 질문을 하신 후에 “너는 네 가지는 잘했으나 큰 교회 되고 유명한 목사 되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 하였구나.”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함께 천국을 구경하는데 63빌딩보다 높은 집이 있었습니다. 천사 말이 천국에서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가장 좋은 집에서 산다고 했습니다(단 12:3). 그래서 가장 높고 큰 집을 가진 자는 미국의 전도 왕 무디 선생이고, 두 번째는 감리교의 창설자 영국출신 웨슬리 목사의 집이며, 세 번째는 이태리 성자 프랜시스 집이고, 네 번째는 한국의 전도 왕 최권능 목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다 보석으로 지어졌습니까(계 21:19-21). 천사는 천국에는 개인집이 있는데, 예배드리는 시

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 십일조 드리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들이 다 천국에서 자기가 살 집의 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박 목사가 보니 집이 없어 꽃밭에서 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한참을 가다보니 닭장처럼 생긴 공동주택이 2채가 나타나 그것이 무엇인지 천사에게 물으니 그것은 목사 일을 하던 사람과 장로 일을 하던 사람이 거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저런 곳에서 사느냐고 했더니 그들은 청잔받기를 좋아하고, 영광과 대접받기를 즐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계 22:12).

박 목사가 자기 집이 보고 싶다고 하자 천사는 이제 터를 닦고

건축을 시작하는 세 채의 집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3층집이 박 목사의 집이라 하여 들어가 보니 3층방의 벽에 상장 2개가 붙어있었습니다. 하나는 18세 때 고아원에서 성탄절을 지키러 교회로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에게 잠바를 벗어준 것이었고, 또 하나는 헌금할 돈으로 다 식은 봉어빵 두개를 사서 드린 것이 상으로 기념되어 있었습니다. 박 목사는 “나는 400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아파트를 교회 옆에 지어 가난한 과부를 42세대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가난한 신학생 39명의 학비를 도왔다. 또 교회당을 지어 5,000명 교인으로 부흥을 시켰는데, 왜 고작 상이 이것뿐이냐?”고 천사에게 따졌더니 “너는 땅에서 국민훈장도 받았고, 문교부 장관상도 받았으며, 신학생들에게도 명절 때마다 감사를 받았으므로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했습니다(마 6:2).

박 목사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학교를 다니면 다 졸업은 하지만, 상은 열

심히 공부한 자들이 받듯, 예수만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열심히 충성해야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는 천국을 보고 와서는 가지고 있던 200억 가량의 재산을 다 팔아 오갈 데 없는 은퇴한 목회자들이 거할 처소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분은 죽는 날까지 간

**광고 없이 판매 없고
전도 없이 구원 없다**

증을 하면서 들어온 사례비까지 다 털어서 오직 주를 위해 살다가 그러도 보고 싶은 주님을 보러 천국에 가셨습니다. 박용규 목사의 간증을 듣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사도바울도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영혼이 빠져나가 천국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를 벗으면 우리는 다 심판을 받고, 심판 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히 9:27).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할 때 내 집을 지을 재료가 천국으로 올라가니까요. 재료가 많을수록 큰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곧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곳에 가고, 내가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봉사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제가 바보라서 이 나이에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받을 상을 압니다(빌3:14). 그 날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와서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도 많이 했는데 목사가 알아주지 않나 하고 눈치 살피지 마세요. 여기서 받으면 천국에서 없습니다. 공력이 그대로 있어야 상을 받는 겁니다(고전 3:14-15). 목회 초기에 제가 한 환상을 봤는데, 어느 목사의 집은 금계, 은계로 터를 닦는데, 제 집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십일조를 당좌수표로 드릴 만큼 많이 드렸는데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에게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랑도 금됩니다. 지금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하면서 목에 힘주고 다니다가는 그 날 닭장 같은 집에서 살 테니 목에 힘 빼세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 성경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계 21:2). 그곳에 가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크고 멋진 집에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며 멋진 집에 살 자가 누구인가

부흥되었고, 박 목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책을 출판하여 그 수입으로 성남에 중·고등학교 셋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를 문교부장관으로까지 추천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박 목사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방관하실 리가 없지요. 1987년 12월 19일 오후 2시경, 박 목사는 고혈압으로 쓰러졌고, 더는 살 가치가 없다는 판정을 받고 10일 만에 퇴원했는데 며칠 후,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꿈을 꾸듯 두 천사가 박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였고, 한 천사는 박 목사와 늘 함께 한 수호천사였습니다. 천사는 “너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후에 당신이 본 것을 세상에 알려 지옥 가는 숫자를 줄이고 천국 가는 사람을 더 많게 하려고 왔다”며 그의 옷을 벗기더니 흰옷을 입

::객원칼럼::

새벽기도의 축복

나는 32세에 하나님을 만나 지금까지 26년째 주의 종의 삶을 살고 있다. 주의 종이니 기도는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나는 늘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 2시간씩 기도해왔다. 그것은 나의 변함없는 삶의 축이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정도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틀에 맞춰 지내왔다. 우리 가정의 취침시간은 늘 새벽 3~4시 사이다. 거의 26년을 그렇게 지내왔다.

그런데 갑자기 신년 들어 목사님께서 새벽기도를 하라고 하셨다. 이전 3~4시에 취침이 아니라 기상을 해야 한다. 요즘 우리 가정은 26년간 몸에 밴 삶을 재정비하느라 매우 어수선하다. 26년간의 맞춰졌던 틀을 다시 짜야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적어도 12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일찍 자는 것이 이렇게 생소한 일인지 몰랐다.

한 달쯤 지난 지금은 패종시계 울리기 전에 일어난 적도 몇 번 있다. 아주 조금씩 적응되어 가는 것 같다. 곧 총회장 목사님처럼 시간되면 자동으로 일어나겠지. 하긴 총회장 목사님도 처음에는 사발시계를 틀어놓고 주무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 생겼다. 귀한 것 한 가지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나의 고착된 사고의 틀을 깨트린 것이다. 원래 '나는 올빼미 체질이라 철야는 해도 새벽기도는 못해' 하며 늘 밤 기도에도 목을 대고 살았는데, 올빼미를 죽이고 종달새가 되어 새벽에 일어나 지지배배 노래하는 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기특하다. 절대 못할 줄 알았는데...

데... 고착된 사고, 깨뜨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어려운 것일 뿐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면 된다. 실제로 해보니 그렇게 큰일도 아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하나님, 나 뭐 좀 다른 거 켈 거 없나요? 고착된 사고나 틀에 박힌 생각 같은 거 말이에요. 참 재미있네요." 하며 기도하기도 했다. 정말 틀을 바꾼다는 것은 흥미진진하여 해볼 만한 일이다.

싱가포르에 여러 차례 갈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3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딴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30년 전의 싱가포르를 그 당시 한국 젊은이의 눈에도 참으로 보잘 것 없는 나라였고, 이 나라는 무얼 해서 먹고 사나 걱정할 정도로 대책이 없어 보이는 나라였다. 땅덩어리는 작고 중소기업공업 정도가 그 나라의 자랑거리였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야 맞을까? 싱가포르의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로 바뀌었다. 지금은 농사나 가내수공업 같은 것은 아예 사라져 버렸다. 그 배경에는 이광요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의 가장 혁신적인 결단은 국어를 중국어나 말레이어에서 영어로 바꾼 일이다. 많은 반대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는 끈질기게 설득하고 밀어붙였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국민이 영어와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되었고, 세계 어디에 내어놔도 당당하고 경쟁력 있는 국민을 만들어놓았다. 이것이 오늘의 싱가포르를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지금은 아시아 주변국

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줄을 잇는 영어수출국이 되었다. 이처럼 고착된 사고의 틀을 깨지 않고는 발전하기 어렵다. 계란껍질을 깨지 않고는 그 속에 백날을 있어도 병아리는 바깥 세상을 모른다. 지난 주 JC 아카데미 주최 젊은이들을 위한 비전 세미나에서 목사님은 헬버거가 꼭 동그래야 한다는 고정된 생각을 깨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거다.

새벽에 기도하니 참 좋다. 아침 일찍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운동도 하고... 하루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아침 일찍 끝내고 나니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하루 종일 뿌듯하다.

사실 밤 기도는 하루 종일 육체를 끌고 다닌 후라 지치기 일쑤고,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정말 기도시간 맞추기도 어렵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새벽은 호젓하니 정말 좋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새벽에 기도했다. 흥해도 새벽에 갈라졌고, 어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뜨리셨다. 주님도 새벽에 부활하셨다. 나도 새벽에 내게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한다.

세상에도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형 사람들이다. 잃어버렸던 새벽을 찾아주시는 하나님과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한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응답과 크신 은혜가 넘쳐길 바라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나"(시46:5).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시57:8).

이시대 목사

레마

기독교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하루는 하나님께서 닭과 개와 돼지를 불러서 "너희는 이제부터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사람들을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봉사하다가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 후에 닭과 개와 돼지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닭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하는데 시간을 몰라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쵸꼬오!' 하며 새벽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며 닭에게 베풀을 주었습니다. 그 후부터 닭은 상으로 받게 된 베풀을 항상 자랑하며 흔들고 다녔습니다. 두 번째 개가 와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도적이 많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이상한 사람이 보어도 '멍멍!' 하며 힘껏 짖어서 집을 지켜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3개의 다리를 가진 개에게 다리 하나를 더 주었습니다. 다리 하나를 선물

삶의 목적을 찾아라

로 받은 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네 번째 다리가 너무나도 귀해서 웅변을 볼 때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꼭 다리 하나를 들고 웅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돼지가 와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 세상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고 자고 놀다가 왔습니다." 돼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여봐라! 게 아무도 없느냐? 저 돼지주둥이를 단칼에 치라." 그러자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대로 돼지주둥이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돼지주둥이는 코와 입이 붙어 하나가 되었고, 그 결과 돼지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숨이 막혀 곤란해했습니다. 돼지는 자신의 코와 입이 붙어 있어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한 가지 괴를 생각했습니다. '돼지머리 뽕뽕 복 받는다'는 거짓 풍설을 퍼뜨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복을 받았다고 돼지머리를 잘라 제사장 위에 올려놓고, 그곳에 납죽납죽 짙을 하며 제사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상에 오른 돼지는 납죽납죽 짙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에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게 웃음을 터뜨

려 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 잘라놓은 돼지머리는 일련단심 변치 않고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되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개는 개같이 만드셨고, 돼지는 돼지같이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는 유일하고 독특한 개 만드신 목적과 이유를 찾는 것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후회 없이 사는 한해가 되자' 라는 표어를 목상해봅시다. 돈, 명예, 큰 부흥은 아니어도 각자 자기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자가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낼 것입니다. 저는 이초석 목사님과 같이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처럼, 큰 목회는 아닐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렵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교회에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특히 개교회회를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축복을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마산예수중심교회 최연식 목사



귀를 기울이세요

"다 일어나!", "뛰어!", "손뼉을 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귀신아, 가라!"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열정 가득한 찬양과 온몸으로 부르짖는 통성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단에 서신 목사님을 필두로 성전에 모인 수많은 성도들과 위성과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지교회와 성도들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진풍경이자 큰 자랑이지요. 물론 우리 교회에는 새로 오셨거나 우리 교회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예배 광경에 익숙하지 않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송을 부를 때 박수를 치는 것도 생소하게 느껴지셨습니다. 전 교인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귀신을 쫓는 모습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예배는 내 영지리에 앉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은 하나님의 계가 성으로 들어올 때, 왕의 체면을 무릅쓰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하여 춤추고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았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의 각 순서마다 지극히 작은 말씀에도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손뼉을 치려면 손에 힘이 나게 치고, 귀신을 쫓으려면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 보십시오. 처음 시작은 어렵고 잘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당신의 그 작은 몸짓 하나를 하나님은 주목하실 것입니다. **신석재 전도사**

::성경에서 배운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인간의 인격 형성이 대부분 만 6세 이전 유아기 때에 완성된다고 한다. 유아기라 하면 학교 교육이 시작되기 전이고 사회적 영향을 덜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를 통해 보고, 느끼고, 생각하며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인데, 유아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봐도 아이들의 이상행동이나 뻔뻔해진 성격 교정을 위해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해결점은 아이 자체가 아닌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 변화에 있다. 이처럼 양육은 부모의 삶이 투영되는 거울과 같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사사로운 마음과 바꾸지 않은 여인이다. 남편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면서도 수태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든 그녀는 애초부터는 마음을 사람의 방법으로 풀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서원을 주저하지 않는 담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러한 자신의 슬픔도 모르고 슬 취했다고 오해하며 비난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감정적으로 얼굴을 붉히기보다 침착하게 자신의 소원하는 바를 아뢰었으며,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은 이후,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삼상1:18). 그녀가 가장 위대한 점은 훗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도록 허락하시자 약속대로 젖을 떼 후 아이를 수수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돌려드린 것이다(삼상1:20-28). 어렵게 얻은 자식을 성전에 맡기고 주저할 없이 돌아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는 깊은 영성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과 바른 신앙을 지닌 한나에게서 난 사무엘은 이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국민의 존경과 인정을 한몸에 받는 영적 거장이 된다. 그가 굳건한 신앙 속에 얼마나 청빈하고 투명한 삶

을 산 선지자였는지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는 자리에서도 드러나는데, 그가 지도자들과 백성 앞에 “내가 뉘소를 취하였느냐 뉘 나귀를 취하였느냐 뉘 구를 속였느냐 뉘 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뉘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삼상12:3)고 당당히 묻자 백성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뉘 손에서 아무 것도 취한 것이 없다”(삼상12:4)고 시인할 만큼 모두에게 인정받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길 소망한다면, 부모의 삶부터 점검하고 신실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며 믿음으로 자식의 앞날을 축복할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등불로 빛나게 될 것이다.

하인영

Good News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 한 사람이 청중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젊은 청년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친구와 함께 탄광에서 채탄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선생님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무신론자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현명한 젊은이군요.”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청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채탄작업을 하다가 천

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석탄 더미에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박대한 죄 때문에 죽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석탄 더미에 깔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열변을 토하던 무신론자는 얼굴을 붉히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천하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시53:1)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고?” 반문하는 분이 계시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요 진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너의 인생이 재미없느냐?

JC Academy series

지난 6일 JC 아카데미 강사로 연단에 오른 신홍화장 목사님께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신바람 나게 사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셨다.

“성경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마7:6)고 기록되어 있다. 나는 너희 중에 개, 돼지와 같은 자가 없기를 바란다. ‘무딘 철 연장’ 날을 감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는 나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전10:10)는 전도자의 말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여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날로 성장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녹이 슬면 안 된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이 재미없다고 하는데, 이는 씨앗이 제 밭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기에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이 생기는 것이다(약1:14). 나는 진정으로

신바람 나서 기도하고 설교하며, 해외에 나가 집회를 인도한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내가 신바람 나서 하게 되면 남들보다 감정의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중에도 능히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께서 보시기에 선한대로 우리를 각각 빚으셨다(렘18:4). 그 분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내 모습에 대해 그 분께 감히 힐문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은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내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괴롭고 스트레스가 물려온다면 내 것이 아니니 바꾸되 단, 지금 당장의 감정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한 후에 행해야 할 것이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이 있다. 한 가지 일을 묵묵히 하면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곧 자기가 하는 일이 좋아서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나면 신바람 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동업하고, 밤늦도록 해도 싫증나지 않는 일을 하라. 그것이 성공의 비법이며,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젊은이들에게 사치와 낭비하는 습관을 버리고 규모 있는 생활에 힘쓰라는 말씀에 더불어, 어떤 것이든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준비해 그 분야에서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이셨다. 오늘날의 말씀이 우리 젊은이들의 심령에 깊이 박힌 듯이 되어, 올 한 해는 물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후회하지 않는 삶’, ‘신바람 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이국진 기자

Q&A

Q: 성경을 읽다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표현이 ‘히브리인’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아람이 압 북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받은 이름입니다(창32:18). 그에게서 태어난 12명의 아들들이 지파를 이루고 애굽(이집트)에서 430년간 생활하다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으로 예배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들 무리를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였는데, 나라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남쪽의 나라는 유다지파가 중심이 되었기에 남 유다라 불렸고, 북쪽의 나라는 북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렸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강을 건너 온 자’라는 뜻으로 셈의 아들 ‘에벨’이 바벨론에서 유브라테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에 유래하여 생겨난 명칭입니다. 족장시대부터 다윗왕조 이전까지 많이 불렸습니다. 다윗왕조 이전까지는 이방민족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다윗왕조가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격상되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의 기원은 B.C 586년 바벨론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남 왕국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유다지파로부터 잡혀온 사람들이란 뜻으로 ‘유대인’이라 불렸습니다. 포로시대가 끝나고 나서도 이 명칭은 신약시대까지 계속되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너는 너의 할 일을 다하라
그리고 나머지 일을 하늘에 맡겨라**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

